

# 새누리 1·더민주 2~5·국민의당 5~8석

## 선택 4·13 도내 각 정당별 예상 의석수

▲새누리당... 1(당선)~3(득표율 15%이상)  
새누리당의 경우 최선의 시나리오는 1석 이상의 당선자와 15%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3명 이상의 후보자 배출이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번 20대 총선 전부터의 명확한 전략은 '정운천' 후보 당선을 위한 총력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할 만큼 정 후보를 위한 정 후보에 의한 정보의 선거 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전북도당이 정 후보 당선을 위해 도당 차원에서, 도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력을 집중한 셈이다.

도당은 특히 과거 더민주와의 싸움에서 이제는 아전 분열에 의한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정 후보 당선을 그 어느 때 보다 기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새누리당의 전북지역 당세 확장을 위한 교두보로서 두 자리 이상의 지지율을 받는 지역 3곳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전주갑과 익산으로 차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안정적인 지지율로 도당의 원활한 정당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당... 2~5석

야당 텃밭인 더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 민심을 종합할 수 없게 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다.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국민의당 출현으로 '더민주 공천=당선'이라는 수식어가 사라졌다.

실제 전북지역 곳곳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선거구의 경우 "투쟁을 열어보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이 회자될 만큼 그 어떤 장담도 할 수 없는 살얼음판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의 명운이 결정될 수도 있는 만큼 의석수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선거운동을 선거법이 정한 시한까지 '채움 만큼' 채워 진행했다.

도내 3대 정당이 예상하는 최선·최악의 의석수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중 우세지역은 새누리당 1곳, 더민주 2곳, 국민의당은 7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2곳은 살얼음판과 같은 초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당 후보들과의 여론조사 결과는 한 마디로 피말리는 접전의 연장이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중 더민주의 일관된 우세 지역은 단 1~2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8~9곳은 '차고편 바뀌는' 여론조

사 결과에 온 신경이 풀려야 하는 마뜩찮은 현실과 함께 선거 막판 불어오는 호남 발 '녹색바람'이 더민주의 자존심을 긁고 있다.

지난 7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후 오저밖 위 내에서 국민의당 후보와 얽차락 뒤처락하며 서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새누리, 1석 확보 목표  
정운천 당선 위한 총력전

더민주, 상황 매우 급박  
우세지역은 1~2곳에 불과  
문재인 정치적 운명도 달려

국민의당, 5곳에서 우세  
5석만 확보해도 절반의 성공

현재 여론도 누구도 당선을 예측하지 못할 만큼 피 말리는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더민주당 후보들이 이전과 달리 흑독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는 세간의 말이 파부에 와 닿는다.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전북 민심은 이제 특정 당과 후보에게 쉽사리 당선을 허락 할 만큼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 않다.

특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빚어졌던 익산의 '재활용' 공천 등으로 인한 도민의 상실감과 배신감을 상쇄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며 국민의당 조배속 후보에게 속절없이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더민주 5석 이하의

총선 성적표를 최악의 경우로 상정하고 있는 눈치다.

반타작이 인텔 경우 국민의당에 전북 정치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초라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총선 결과에는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달려 있다.

문 전 대표는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 5~8석

국민의당은 익산과 군산, 정읍고창, 남원순창임실, 완주무주진안장수 등 5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갑을병과 익산갑, 김제부안은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 후보들과의 경합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창당 후 처음 치르는 선거에서 중앙당의 예상 의석수(30~40석) 중 전북에서만 5석만 확보해도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셈이다.

국민의당 중앙당은 이번 총선에서 호남 28석 가운데 전북(10석)은 8석, 광주전남(18석) 14석을 우세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나머지 경합지역에서 전북에서만 1~2석을 가져올 경우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20석 이상을 얻을 수 있어 전국 정당으로서의 확실한 승기를 짊어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적용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 “투표, 우리시대 새로운 혁명”

시민단체, 참여 촉구... “아름답게 선택할 수 있길”

20대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시민단체들이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1000여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2016 총선네트워크(총선넷)'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함세웅 신부 등 사회 원로와 유권자단체 대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비가 내리면 민주주의가 자란다'며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상 최악의 양극화로 국민 대다수 삶이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이 집권세력에 대한 냉정한 중간평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투표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함 신부는 솔로몬이 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성에게 "산 아이

를 돌려 나누어 주어야"고 말하자 친여계가 "아이를 양보할테니 죽이지 말라고 간청했다"는 내용의 '솔로몬의 재판'을 언급하며 "포기하는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정치인들이 속출할 때 우리나라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일잔재, 유신독재, 부패관료 세력 청산은 투표를 통해 이룩할 수 있는 우리시대 새로운 혁명"이라며 "국민이 아름다움을 선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선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가 유권자 투표참여와 공정한 선거활동을 촉구하는 캠페인 및 자진거행진을 진행했다. /특별취재반

김성주 후보 “분열 넘어 하나된 전북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전주 병)는 12일 선거운동 마지막 날의 사회로 분열을 넘어 하나된 전북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김 후보는 500조의 사나이, 미스터 기금본부라는 별명을 갖 정도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시켜 IT공사로 무너진 전북의 자존심을 세웠다"면서 "전국 최초 건강증행센터 전주 설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 지원 유치,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탄소소염육성지원법안 대표발의 및 국회 법사위 통과 등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은 전북이 과거에

머물 것인지,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중대한 선거다. 민주정부에서 당의장과 장관까지 지내며 힘 있다고 해도 화려한 말로는 전북발전을 이룰 수 없다.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실한 일꾼이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거리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고 많은 말씀 들었다. 행복했다. 감사드린다. 그러나 상대후보의 출마로 전북 정치권은 물론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마저 서로 갈등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곳저곳 왔다갔다 하는 철새정치, 선거때에만 돌아오는 탕자가 아니라 항상 전주를 지켜온 효자 한우를 정치인 김성주를 선택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분열을 넘어 하나된 전북을 만들겠다"며 선거 마지막 날의 사회를 밝혔다. /특별취재반

김춘진 후보, 부상에도 막판 표심잡기 총력

제20대 총선 전북 김제·부안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후보가 선거 막바지 유권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김 후보는 이른 오전부터 김제와 부안을 넘나들며 유권자를 만나고 오후에는 김제 비사벌사거리에서 지지자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유세를 펼쳤다.

지난 8일 사전투표와 관련한 불발선거운동 의심 택시기사로부터 폭행까지 당했던 김 후보는 이날도 팔에는 김소 목과 허리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표심잡기에 주력하는 투혼을 보이고 있다.

김춘진 후보는 "후색사전 및 비방이 난무하고 후보자폭행 피해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소신을 갖고 클린선거를 치렀다"고 자평하며 "소지역주의를 극복해 이번 선거에서 당당히 승리함으로써 김제와 부안의 유권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특별취재반



“문제는 정치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제는 정치다' 인터넷 생방송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 TV토론회 영향력 당락 결정 여부 '주목'

제20대 총선과 관련, 각 후보들이 참석한 선거 토론회의 영향력이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은 도내 상당수의 후보들은 토론 대처능력에 따라 지지율이 변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실제 투표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일부 선거구에서는 TV 토론 전후로 관세가 확연히 달라지는 등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토론내용이 정책대결보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주를 이루기도 해 후보간 갈등 요소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정가 한 관계자는 "후보들에 따라서 명망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 판세에 어느 정도 미칠지 주목된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 새누리 익산지역 후보들 시민들에게 지지 호소

20대 총선에서 익산시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이 최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행식(익산시정)·김영일(익산갑)·박종길(익산을) 후보는 익산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진방 마른방 가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다"며 "오직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뛰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선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북과 더욱 낙후된 익산은 이제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며 "우물 안 개구리로는 그 나물에 그 밥을 지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동적인 리더십과 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비전과 노하우, 아이디어를 결합해 익산에 새바람, 신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동네 반장을 뽑는 선거가 결코 아니다"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농촌에 홀로 남겨진 부모님, 취업을 하지 못해 외지로 떠나야 하는 청년들, 앞으로 익산을 지켜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고 지켜갈 새 일꾼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와 연고 친분 관계를 떠나 익산을 살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한 가지 목표인 '익산 살리기'에 온 힘을 던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민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특별취재반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절차 안내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어떻게 할까?

투표 절차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 0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합니다.
- 02 투표표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습니다.
- 0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합니다. ※ 정당에 한 표, 후보자에 한 표
- 04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을 투입합니다.
- 05 투표 후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투표에 관한 유의 사항

- 투표 안내문에 적힌 안내를 확인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시간 준수
-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해당 기표용구 외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
- 기표소내 투표지 촬영금지
- 운동화생각하는 투표소에 동반입장 가능

blog.nec.go.kr 정당당명스토리 OPEN